

주가 대폭락 '검은 목요일'



배경과 전망

고금리 대부업체 거래고객들 2금융권 갈아타기 쉬워진다

▲환승 론(loan) = 우량한 대부업체 거래고객을 제도권 2금융사로 갈아탈 수 있게 해주는 제도다.

환승론 이용조건 대폭 완화

금융감독당국이 고금리 대부업체 거래고객을 2금융권 대출로 갈아탈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 고안한 환승론의 문턱이 크게 낮아졌다. 더 많은 대부업체 거래고객을 제도권으로 끌어 올려 금리 인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조치로 환승론 참여업체들의 적극적인 대출 태도도 한몫했다. 16일 금융감독당국과 환승론 시행업체인 한국이자론에 따르면 현대스위스·솔로몬·삼화저축은행, GB캐피탈 등 환승론 참여 금융회사들은 최근 환승론 이용조건을 대폭 완화했다. 한국이자론은 우선 대부업체 대출이 4건 이하여야 한다는 기본조건을 없애기로 했다. 즉 4곳 이상의 대부업체와 거래를 하고 있더라도 정상적으로 상환할 만큼 경제력과 상환의지만 있다면 환승론으로 갈아탈 수 있는 기회를 준다는 의미다. 또 금융기관 신용대출과 현금서비스, 대부업체의 대출금에 연계와 연

속도의 비율을 기존 100%에서 120%로 조건을 완화했다. 현 직장에서 6개월 이상 재직해야 한다는 조건은 3개월 이상으로 수정했고 대부업체 6개월 이상 거래자만 환승론으로 갈아탈 수 있도록 했던 규정도 없앴다. 대부업 연체일수 조건도 최대 15일에서 25일로 늘려 정상상환의 범위를 늘렸고 7등급까지로 한정했던 신용등급요건은 9등급까지 확대했다. 10등급은 채무불이행자·개인파산자 등이 분포한 등급으로 사실상 상환이 불가능한 사람이 많다. /연합뉴스

美 서브프라임 폭풍... 불확실성 고조

사상 유례없는 국내증시의 폭락으로 인해 향후 주가 움직임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일부 전문가들은 미국의 서브프라임모기지 사태로 인한 불확실성이 고조되고 있는 만큼 조정이 더 길어져 연말까지는 상승추세로 완전히 복귀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 진단과 함께 코스피지수가 1,600선까지 내려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반면 최근 지수가 고점 대비 15% 정도까지 하락한 만큼 추가 낙폭은 크지 않을 것이며 지수는 최대 1,650~1,670선 정도에서 조정이 마무리될 것이라 반론도 만만치 않다. <서브프라임 사태+투매현상이 급락 초래=이번 급락은 미국산 신용경색 우려가 전세계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개인투자자들의 손절매와 신용경색의 반대매매 등 내부수급 약제까지 겹쳐 다른 나라에 비해 낙폭이 컸다. 특히 투자자들의

투자자들 패닉에 실물 경기 위기로 번져 당분간 관망... 장기적으로 저가매수 기회

패닉에 따른 투매현상이 낙폭을 키웠다. 서브프라임 사태의 손실규모와 피해 금융기관에 대한 정확한 예측이 불가능함에 따라 관련 불확실성이 증폭되면서 투자심리가 급랭했다. 유동성 문제가 실물 경기 위기로 번지면서 매도심리를 자극했다는 분석이다.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소비나 고용지표가 나빠지면 미국의 실물 경기가 악화될 수밖에 없고 이는 곧 국내 경기와 금융시장에도 타격을 줄 것이라는 우려다. <상승추세 꺾여 대(對) 저가매수 기회=서브프라임모기지 사태로 인한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외국인 투자자들 사이에서 위험자산을 팔아 현금을 확보하려는 성향이 짙어

졌다. 이 때문에 코스피지수는 1,600선까지도 하락할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정경수 우리CS자산운용 주식운용본부장은 "유동성 과잉 우려 문제가 엔케리 트레이드(일본에서 저금리의 엔화 자금을 조달해 금리가 높은 국가에 투자, 차익을 얻는 거래)의 환수 등의 다른 형태로 번질 가능성이 있어 당분간 '팔자심리'가 확산될 것"이라며 "유동성 문제가 해소되면 적지않은 시간이 걸릴 것인 만큼 반등은 기대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나 조만간 미국의 금리인하 등의 처방으로 국제금융시장이 안정을 찾게 되면 우리 증시도 반등의 기회를 엿볼 수 있는 만큼 저가매수

의 기회라는 전망도 만만치 않다. 이재현 KTB자산운용 주식운용본부장은 "그동안 너무 가파르게 올라 당분간 기간 조정이 이어질 것이나 추가 하락할 때는 단기적으로 낙폭과대주나 펀더멘탈이 우수한 종목을 중심으로 저점 매수에 나서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정부 리스크관리 강화=김석동 재정경제부 제1차관은 16일 과천청사에서 열린 재경부 정례브리핑에서 "현 단계에서 서브프라임모기지 부실의 직접적인 국내 파급효과는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되지만 정부는 국제 금융시장의 경색으로 확산될 경우 등 다양한 가능성에 대비해 철저히 준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 차관은 "국내 금융시장의 신용경색 등이 우려될 경우에는 즉각 유동성 공급대책을 강구하고 파생결합 금융상품 등에 대한 전반적인 리스크 관리체제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장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아시아나, 복합운송서비스 개시 아시아나항공은 아시아 최초로 복합운송서비스(RFS : Road Feeder Service)를 도입해 16일부터 서비스에 들어갔다. AMX(Asiana Multimodal Express)라는 이름으로 16일부터 시작된 이 서비스는 중국 현지에서 트럭에 실린 화물이 한-중간 페리를 통해 인천항에 도착해 하역없이 트럭에 인천공항으로 이동해 세관검사를 거친 뒤, 아시아나 카고 비행기를 이용해 전세계에 운송되는 서비스다. /연합뉴스

1만弗이하 소액 물품 가격 신고 없이 수입 정부 과세가격신고제도 개선

정부는 1만달러 이하의 소액 수입 물품에 대한 가격신고제도를 면제하기로 했다. 또 최빈개발도상국에 대해 무관세를 적용하는 비율을 현행 1.8%에서 올해 안에 75% 이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재경부 관계자는 수입물품 과세가격 신고제도 개선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2007 관세제도 개편방향'을 17일 관세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심의하고 9월 중 정부안을 확정된 뒤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16일 밝혔다.

개편방향에 따르면 1만달러 이하 소액신고 물품에 대해서는 수입신고서 상 신고된 수입가격의 산정근거와 자료를 신고하는 가격신고를 면제하기로 했다. 지난해 수입물품의 가격신고 대상 331만건 가운데 1만달러 이하인 물품은 48%(160만건)에 이르기 때문에 연간 160만건의 신고서 제출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재경부 관계자는 "소액물품에 대한 가격신고는 실익도 크지 않은데 신고서 제출부담만 있기 때문에 면제 기준을 신설한 것"이라며 "미국과 EU 등이 1만달러 이하 물품의 가격 신고를 면제하고 있다는 점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보세공장에서 제조한 물품을 국내로 수입하는 경우에 부과되는 원료과세 제도도 현행 건별로 신청해야 하는 것을 포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간소화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南 경제 규모 北의 35배

1인당 국민소득 17배차

지난해 북한의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8년 만에 마이너스로 돌아섰다. 또 북한의 경제규모는 남한의 약 35분의 1, 1인당 국민소득은 17분의 1 수준으로 남북간 격차가 더욱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16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06년 북한 경제성장률 추정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북한의 실질 GDP는 전년대비 1.1% 감소해 1999년 이후 처음으로 마이너스로 전환됐다. 전년대비 북한의 실질 GDP 성장률은 1998년 -1.1%에서 1999년 6.2%로 돌아선 뒤 2005년까지 7년 연속 성장세를 이어왔다. 함은은 "작년 북한의 경제성장률이 뒷걸음 친 것은 기상여건이 악화

하면서 농림어업 생산이 감소한데다 도로 등 토목건설을 중심으로 건설업이 부진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 핵 문제 등으로 국제관계가 악화한데다 에너지 부족문제가 현실화하면서 전반적으로 어려운 상황이 지속된 것 같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북한의 농림어업 성장률은 기상여건 악화로 곡물생산이 감소하면서 전년대비 2.6% 하락했다. 광업은 석탄과 비금속광물의 생산이 증가했으나 연·아연광·동광 등 금속광물의 생산이 감소하면서 전년(3.5%)보다 성장세가 둔화해 1.9% 성장했다. 북한의 국민총소득(명목 GNI)은 256억달러로 남한(8천873억달러)의 약 35분의 1(2.9%) 수준이었다. 또 1인당 국민총소득(GNI)은 남한(1만8천372달러)의 약 17분의 1수준인 1천108달러였다. /연합뉴스

■ 국내 1,000대 기업은

기업 나이 25.6세에 종업원 1천 437명, 연 매출 1조1천920억원, 순이익 799억원. 대한상공회의소의 기업정보 데이터베이스인 코참비즈(www.korchambiz.net)에 오른 우리나라 1천대 기업의 평균적인 모습이다. 대한상의가 16일 발표한 '코참비즈를 통해 본 대한민국 1천대 기업의 특징'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年 1조1,920억 매출에 799억 순익 평균 역사 25.6년·종업원 1,437명

기준 우리나라 1천대 기업의 평균 종업원 수는 1천437명으로 2002년에 비해 6.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이들 기업의 작년 매출액은 평균 1조1천920억원으로 2002년에 비해 28.6% 증가해 종업원 수

증가율을 앞질렀다. 이는 이 기간 1인당 매출액이 증가했음을 의미한다. 2002년 이후 1천대 기업에 신규로 진입한 기업들은 여기에 평균 16년이 걸렸고 매년 평균 105개 기업이 1천대 기업에서 탈락한 것으로 집계됐다. /연합뉴스

S the 1 요리학원 大특강 개강

● 제2기 카빙(carving) 1일포다양식 스니프팅수강생모집 ●

맛과 멋이 살아있는 행복한 요리교실에 당신을 초대합니다

- 전문 요리사 1명 1시간 1인당 1인분 요리
- 전문 요리사 2명 2시간 2인분 요리
- 전문 요리사 3명 3시간 3인분 요리
- 전문 요리사 4명 4시간 4인분 요리
- 전문 요리사 5명 5시간 5인분 요리
- 전문 요리사 6명 6시간 6인분 요리
- 전문 요리사 7명 7시간 7인분 요리
- 전문 요리사 8명 8시간 8인분 요리
- 전문 요리사 9명 9시간 9인분 요리
- 전문 요리사 10명 10시간 10인분 요리

세부정보는 홈페이지 참조

☎ (062) 385-0723 ~ 4

농기계는 구입처를 잘 선택하셔야 후회가 없습니다.

대포기 대여 및 판매

신발깎기, 밭갈이, 파종기, 수확기, 이앙기, 관수기, 방제기, 수확기, 이앙기, 관수기, 방제기

☎ (062) 363-4800

삼아상경

수확기, 이앙기, 관수기, 방제기, 파종기, 밭갈이, 수확기, 이앙기, 관수기, 방제기